

**특우 컬럼**

굴러온 돌

나는 지교회 목사들에게 ‘절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주객전도(主客顛倒)요, 도둑이 매를 든 꼴이기 때문이다.

박힌 돌은 주춧돌이다. 그런데 주춧돌을 빼 버리면 그 집이, 기업이, 교회가, 국가가 와 르르 무너지고 말 것 아닌가. 지금 파라과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당부하신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 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딤후3:6). 갓 들어온 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는 뜻이다. 좀 배웠다고, 좀 있다고 딱하니 자리를 내 주면 그들이 ‘내 배경이, 내 재력이 교회에 도 통하는구나.’ 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 위주의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나도 듣는다. 그러나 나는 단칼에 “No!” 한다. 젊은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교단의 희망이요, 꿈이다. 그렇다고 3~40년을 함께 온 백발이 성성한 박힌 돌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나에게 그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귀하다. 박힌 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난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는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이 박힌 돌도 빼내야 할 때도 있다.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은 경우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죽은 것이기에 뽑아내야 하듯,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박힌돌은 빼내야 한다. 크라이슬러의 성공 주역은 아이아 코카다. 아이아 코카가 크라이슬러에 갔을 때는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다. 자세히 보니 박힌 돌이 문제였다. 뿌리가 썩은 거다. 그럼 뽑아내야지. 그는 먼저 35명이나 되는 부사장 중 33명을 퇴출시키고, 많은 정규직을 해고했다. 그랬더니 몇 해 지나지 않아 부채를 일거에 상환하고 순익을 내는 신화를 일궈냈다. 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마19:30)는 말씀도 생각해봐야 한다.

박힌 돌은 나태해지지 않아야 하고, 배타적이지 말아야 한다. 또 굴러온 돌은 박힌 돌을 우대하고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서로 조화되어, 단체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불가능이란 생각을 깨라고 외치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인생은 내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고 강조하셨다.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가 주인이다. 다 준비해놓았으니 네가 맘대로 찾아서 쓰고 누려라. 머리가 뿔이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너는 나를 닮아서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일으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남녀노소, 배웠다, 못 배웠다 따지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중풍병에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다는 소식에 그는 친구들을 불러 나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용신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이 요한 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40년 전 한 명을 놓고 시작하여 오늘날 전 세계 74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세계에 나가 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If you believe in Jesus, nothing is impossible! 예수를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얇은 물가에 서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외국어를 두려워했다라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잠시간 비행

불가능이란 생각을 깨라

우리에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붕우 이초석 목사

예수님의 말씀이다 (막9:23)

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Nothing is impossible! 너는 불가능이 없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벧4:13)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베드로도, 나 이초석 목사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스스로 한계를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초월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할 틈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지분을 뚫어서라도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줄 것을 강청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는 좌절, 낙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의 속도를 높여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셨고, 죄 사함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뒤로 하고 일어나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거릴 때 나는 당당히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기 타는 것을 두려워했더라면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날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찰싹거리는 파도 따위보다 궁극적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일에 내 목숨까지 내놓았기에 통역관을 쓰며, 수십 시간의 여정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의 부르심에 오직 예로써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생각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망망한 대해로,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5:1~23)



불순종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악대와 나귀를 죽이라”(삼상15:3).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신명기 25장 17~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찌니라 너는 잊지 말찌니라.”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아말렉이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약해질 때로 약해진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쳤으니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별주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에이, 요녀석” 하고 내 자식을 때린다면 부모가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셨는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출 17:14) 하였고, 마침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완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챙겼습니다(삼상 15:9). 100%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이를 알고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변명을 늘어냈고,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15:23).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이 “그 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점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뭐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20:3)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서 골로새서 3장 5~6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고 하였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는 만들어 절하던 자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6장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총회장 이초석 목사

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신6:14~15)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멸문지화(滅門之禍)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은 사술(詐術)의 죄와 같고 하셨습니다. 술객(術客)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도 그와 같은 죄니 성 밖에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찾아 들어가는 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류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까? ‘선악과는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신명기 28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는 축복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절 이하의 축복과는 상반된 저주의 장입

니다. 읽기도 끔직한 저주가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리느냐? 바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28:1) 축복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신28:15) 저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

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신30:15~18). 순종하면 생명과 복,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선택자인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원하고 택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으니 주일 성수 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십일조 하면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토 달게 없습니까. 사울처럼 주저리 주저리 핑계대

고 하십니까? 오직 ‘예’ 하면 됩니다. 이에 불순종하면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요, 술객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는 줄 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하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요14:23)라고 하였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요14:24)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 말을 지킬지도 안 듣는다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젊은 시절, 세상의 유혹을 겪은 솔로몬은 노년에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12:13).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자식이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복을 원하시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넉넉히 들어옵니다.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핑계대지 마세요. 요나 꼴 날 뿐입니다.

성경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뤄진 게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라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

:: 객원칼럼 ::

:: 책을 펴다::

악을 두둔하지 마라

미국의 9·11 테러 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 편을 들고, 그들을 두둔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완전 멸망 당하고, 대통령이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파키스탄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건진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결국 파키스탄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전 세계가 실시간 TV 중계로 보는 중에 피살당했다. 파키스탄은 그를 두둔하지 않았기에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악을 두둔하거나 악의 편에 서면 함께 멸망한다. 마귀 편에 선 3분의 1의 천사들처럼.

사사기 19장~21장에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 사람의 첩을 밤에 강제로 끌어내어 윤간하고 죽인 자기 지파 중 몇몇 젊은이들을 비호하다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 광야로 도망간 젊은 병사 600명 외에 전 지파가 멸족당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십여 명의 악한 자들을 두둔하려다 온 지파가 멸족당한 것이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한 것도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악행은 두둔하면 공멸한다. 잠언 17장 15절, 18장 5절에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와 악한 자를 옳다 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

엘 민족, 모압 평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자들, 고라와 그 일당들, 아간과 그의 가족들, 발람과 그의 가족들, 불로 태워 죽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외식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고린도 교회 아버의 첩을 간음한 아들... 수 없는 죄와 악을 처벌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귀의 일, 즉 죄와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이다.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두둔하면 안 된다. 합리화시켜서 감싸지 말아야 한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부정, 원망, 거짓, 게으름, 험기, 탐욕, 음란, 술취함, 노름... 혹은 나의 태생이라고 말하며 평생 습관 따라 행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모두 내쫓아야 한다. 내 속에 숨어 있거나 솟아나는 죄나 악을 두둔하지 마라. 끼고 돌지 말라. 내쫓아라. 잘라내라. 그것들과 함께 내 인생이 공멸한다.

일생을 바쳐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함께하고 동행하려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축복된 공생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인, 우리 정당, 우리나라 백성일지라도 악을 두둔하면 공멸한다. 당장에 손해가 오고 힘이 들더라도 죄와 악의 편에 서지 마라. 항상 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4:7~8). **이시대 목사**

목표가 있으면 변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초나라 장왕은 처음 왕위에 올라 나랏일을 돌아보지 않고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져 세월을 보냈다. 충신들은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여 진언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러기를 3년, 한 신하가 죽기를 각오하고 장왕 앞에 나가 간했다.

"전하, 큰 배에 선장이 갑자기 죽어 부선장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부선장은 기뻐 매일 잔치만 벌였습니다. 워낙 큰 배라 현재는 별 탈 없지만, 조만간 압조 많은 바다에 이르게 될 터이니 이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 집 뒤 숲속에 크고 멋진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3년 동안이나 날지도 아니하고 노래도 아니합니다. 이 새를 어찌할까요?"

장왕이 이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장왕이 이르기를 "그대 집 뒤 숲속의 새가 3년이나 날지

도 않고 노래하지 않은 것은 더 높이 날고 더 아름답게 노래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소. 그대는 이제 곧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라고 답했다. 이날 이후, 장왕에게는 초나라라는 큰 배의 키를 잡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목표가 생기자 장왕은 변하기 시작하여 천하를 굽어보는 대붕(大鵬)이 되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느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 찍어버리려고 하자 과원지기가 이에 깨닫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꼭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다고 했다. 분명히 열매를 맺었을 거라 생각한다.

목표를 정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교단소식 ::

2024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입학 및 개강예배



"이 길은 누구나 갈 수는 있으나 아무나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지난 3월 12일(화) 오전 10시 노량진 교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입학 및 개강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의 첫 일성(一聲)이다.

"역센 음식은 누구나 먹는 것이 아니다. 위장이 튼튼한 자가 먹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듯, 주의 종 길은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 중 열두 제자만 택하신 이유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일정한 조건을

지 못하고'(눅14:26), 이것이다. 이는 부모를 비롯한 혈연관계를 다 청산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주님이, 주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죽어 장사를 지내야 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좇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눅 9:60). 그럴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았다. 어머니 회갑 때에도 집회를 나갔고, 자식 입학이나 졸업식을 한 번도 챙기지 못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했고, 주

님의 일이 항상 먼저였기 때문이다.

둘째 조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7) 이다. '내 십자가'란 내 자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 있으면 늘 주의 말씀이나 명령과 상충되어 부딪히게 된다. 아예 그것을 죽여 무덤에 넣어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오로지 '예' 할 수 있는 것이다(고후1:18).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라.

이 길은 '값'을 보고 가면 절대 못 간다. 값이 아니라 '가치'를 볼 때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값을 보려면 세상일을 해라.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안다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절대 변질되지 않고, 절대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가 그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을 생각해보라. 어디 그뿐인가. '하나

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눅18:29~30)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넘칠 것이다. 내가 샘플이다. 종의 개념을 아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밖에서 일하고 막 들어왔는데 또 주인의 수종을 들어라 해도 당연히 기쁨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좋다.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눅 17:10)고 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수하는데 목숨까지 내놓았다. 나는 예수중심제자신학원에서 3년의 교육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목사님은 '매사 최선을 다하라,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지표가 된다면 이들 모두 선한 목자가 되리라 믿는다.

신묘수 전도사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목사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목사, 개신교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다. 한국 이름은 최난헌이다.

토마스牧사는 박해를 피해 산동성으로 피난 온 조선 천주교인을 만나 조선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조선에 대한 선교의 뜻을 품게 되었다.

1865년 가을에 황해도 연안에 도착한 토머스는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며 선교도 하고 천주교 신자들도 만나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다. 그의 관심은 온통 조선 선교에 있었다고 한다.

토마스 목사는 때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서먼호가 무역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1866년 8월, 그는 이 배의 통역 겸 안내자로 동승하여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약 일주일 후 제너럴서먼호는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당도하였다. 제너럴서먼호는 계속 강 상류로 거슬러 평양성으로 향진하였다. 배가 머물자, 평양 감영의 문정관이 등선하여 목적지, 항해의 목적 등을 묻자 토마스 목사는 서툰 우리말로 통역을 하였다. 문정관들은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각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제너럴서먼호는 이를 무시하고 강 깊이 항진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제너럴서먼호는 무역선답지 않게

중무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정관 중군 이현익을 억류하고 강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자 강변의 병졸들과 성민들이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기 시작하였다. 위협을 느낀 제너럴서먼호에서도 소총과 대포로 응사를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 홍수로 불었던 대동강 물이 줄어들고, 서해의 썰물 때가 되자 강물이 급격히 줄어 제너럴서먼호는 강바닥에 좌초하고 말았다. 평양감사 박규수의 명에 따라 군은 상류에서 작은 배 여러 척을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 불을 붙인 신탄선을 띄내려 보냈다. 이 신탄선이 제너럴서먼호 닿자 배가 불타기 시작하였다. 불이 크게 번지자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강으로 뛰어내려 강변으로 헤엄쳐 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병졸들이 물에 오르는 선원들을 닦치는 대로 갈로 쳐 죽였다. 토마스 목사도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어, 성경 몇 권을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왔다.

강변에 이른 토마스 목사를 박춘권이 칼로 죽였다. 그 시체는 토막 내 강변에서 불태워졌다. 이로써 토마스 목사는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개신교 성직자 순교자가 되었다.

토마스 목사는 품고 온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에 뿌렸다.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권에

게도 한 권을 주었으나 받지 않자 그대로 모래사장에 던지고, 순교의 길에 들어섰다. 박춘권은 자기 칼을 맞고 죽어가는 서양 사람이 건네주는 책을 받지 않았으나 상황이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를 주워 집으로 가져갔다. 갖고 간 성경을 정독한 그는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 안주교회 영수(장로)가 되었다.

이때 군중 속에 열두 살 난 소년, 최치량(장로)이 있었다. 그는 토마스 목사가 뿌린 성경 세 권을 주워 갖고 있다가 한 권을 박영식에게 주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 벽지로 발라 썼다. 후에 박영식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다(장대현교회).

토마스 목사는 개신교 목사로서 조선 땅에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 이때가 1866년 9월 2일로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는 이렇게 숨져 갔지만,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그가 순교한 대동강 물을 마신 평양 성민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때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가 흘린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의 부흥과 전 세계 선교의 헌신의 제물이 되었다.

김충준 목사

루터의 종교 개혁(1)

면죄부는 현세의 죄로 인한 벌의 일부 또는 천주교 신부에 의한 사면이 요구되는 고해성사에서 돈을 주어 죄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면죄부는 교황의 권위로 인정되었으며 신임장을 가진 대항자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중세기를 통하여 교황청의 재정난이 점점 더 악화되고 면죄부 판매가 너무 잦을 때 루터는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95개 논제를 작성하여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모든 성인들의 교회 문에 게시하였다. 교황은 루터에게 로마 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던 카에타누스 추기경에게 보냈다. 심문에 응한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다. 루터는 공로 없이 주시는 은사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장했다. 루터는 교황청의 면죄부와 잘못된 교리에 항변하였고, 교황청은 루터의 주장을 꺾을 목적으로 로마로 압송할 계락을 꾸미게 되었다. 그러할 때 작센의 참정관들은 루터에게 그가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압송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주었다. 결국 루터는 친구들의 강권에 못이겨 성채 뒷문을 통해 아우크스부르크를 탈출했다.

루터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신앙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인이 읽지 못했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누구나 읽도록 했으며 찬송곡도 일반인에게 보급했다. 루터의 주장은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라는 성경이었다. 교황청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으나 루터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다. 천주교는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므로 신부들이 가르치는 것이 교리가 되었고 법이 되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만 죄가 경감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루터는 95개 논제를 작성하여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 교회에 게시하게 되었다.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이승호 목사

“그때 그 마음 여전하니?”

:: 소망의 언덕 ::

작년 어버이날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께 얼마 되지 않는 용돈과 편지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잠시만 기다려보라면서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흰 봉투 하나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흰색 편지 봉투 곁에는 ‘당직비’라고 적혀있었고, 그 안에는 뽀뽀한 1,000원짜리 구권 네 장, 4,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첫 당직비라며 가져왔던 돈이란다. 이 귀한 걸 엄마가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잘 넣어줬다가 이제 네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서 돌려준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소재했던 전도단 본부 건물에서 신학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자 신학생들은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했습니다. 교회 본부 직원들이 퇴근할 때부터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의 임무를 마치고 나면 당직비로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좌이체가 아니라 매번 흰 봉투에 깨끗한 돈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4,000원이면 십일조를 제하고도 라면에 주먹밥까지 배불리 한 끼 식사를 하거나 밤을 지새우며 찌뿌둥해진 몸을 풀어줄 사우나에 갈 수 있

는 돈이었기에 물질의 훈련을 받는 생도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첫 당직비를 받고서 ‘첫 열매’로 현금하고, 두 번째 받았던 당직비를 어머니께 가져다드린 기억이 납니다. 22년 전에 드렸던 그 봉투를 지금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셨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 봉투를 그대로 간직하셨는지, 그리고 그날 돌려주셨는지 그 깊은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마치 제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아~, 그때 그 마음 여전하니? 처음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제가 어느덧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 목사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마음을 빼앗겨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삶꾼 목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도 엄한 사랑의 채찍질을 해주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20년이 넘도록 보관하셨다가 돌려주신 그 당직비 4,000원 덕분에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켜보니 회개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그때 당시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늘 제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 부족했지만 늘 진실하려고 애썼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들여다본 제 마음에는 찬양 가사와는 정반대로 그만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싹터있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헌신’할 수 있었던 특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있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말로 포장하려 해도 나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정직하게 용기를 갖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기 전에는 제가 ‘여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춰보니 변질된 곳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회에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따뜻하게 제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시 한번 첫 사랑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그 마음 여전하십니까?”

이현승 목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량진 교육관)

유튜브 생방송

문의 02. 533. 9191